

견/학/보/고

해외 선진 도서관을 견학하고

- 캐나다, 미국 동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

이번 해외연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를 대상으로 하여 선진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현황조사 및 사서직 직원의 자질향상과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만든 2007년도 제1차 “전국 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의 사서를 대상으로 연수 신청을 받은 결과 전문도서관 7명, 대학도서관 5명, 공공도서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 3명으로 연수단이 구성되었다. 연수는 2007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과 미국 동부 몇 개 대학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은 현지 한국인 사서의 안내를 받고 미국 내 견학도서관은 위스콘신주 밀워키대학 문헌정보학과와 정우섭 교수가 전체일정의 안내와 통역을 담당하였다.



박 춘 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과장
 bom@kmu.ac.kr

7박 9일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단이 방문해야 하는 곳은 모두 큰 기관만 9군데, 그것도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두 개의 나라, 큰 기관 속의 작은 도서관들을 모두 따지면 엄청난 숫자의 도서관을 돌아봐야 하는 팍팍한 프로그램에 시차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 과연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고 내심 걱정이 앞섰다.

사전 미팅없이 인천공항에서 처음 조우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수단장과 전국 기관, 대학의 연수단원들은 하나같이 일정이 너무 팍팍하다고 항의하는 것으로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개별

적으로 항공권 발권(Ticketing)하는 것에서부터 연수가 시작되었다. 연수단 대표가 그룹으로 자리를 배정받지 않아 각자 알아서 발권해야 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려나...' 비상구 옆 좋은 자리를 배정받고 흐뭇해 하면서 비행기 탑승, 13시간을 날아가서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저녁 9시, 그런데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개별적으로 입국심사대를 거쳐 입국하게 되었는데 연수단 중 반 정도는 2차, 3차 심사(?)를 거쳐 어렵고도 어렵게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낯선 땅에 당도하니 저절로 연수단원이 가족처럼 살갑다. 현지 가이드를 만나 숙소로 이동한 후 한국에서는 월요일 아침일 일요일 저녁을 맞았다. 뒤척뒤척 날밤을 샌다.

이른 아침부터 토론토대학 도서관을 향해 출발했다. 캐나다 역사에 대해 박식한 가이드와 역사공부를 하며 도착한 토론토 대학은 어디가 도서관이고 어디가 다운타운이며 어디가 사람 사는 마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 중심지 모두가 토론토 대학 캠퍼스였다. 구역 내 중심에 있는 Robarts Library에 당도하니 미리 연락을 받은 도서관 책임사서가 건물 밖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연수단을 안내하여 세미나실에 도착하니 도서관장이 직접 도서관에 대한 개요를 프리젠테이션하였다. 또 다른 참고사서가 '대화형 참고 서비스(온라인 Chat 서비스)'에 대한 시연을 하고 동아시아 도서관 담당사서가 동아시아 도서관에 대한 소

개 프리젠테이션 후 그 사서의 안내에 따라 도서관을 둘러 볼 수 있었다.

대화형 참고 서비스는 담당사서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메신저 형식으로 만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며, 이외 시간에는 담당자의 이메일로 질의가 저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실습을 겸한 이용교육을 고등학생에게도 실시하고 있어 학교와 도서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토론토대학 Robarts Library 입구〉

도서관 투어를 하면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도서관 내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도서관

전체를 커피 향으로 물들게 한 식당코너, 희귀도서관의 아늑한 내부, 인터넷정보실의 특이한 인테리어, 미로 같은 서고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 강렬했던 느낌은 열정적인 도서관장, 연수단을 마중해 준 책임사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친절한 사서들이었던 것 같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다를 바 없어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시설, 환경 등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토론토대학을 떠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들렀던 입국관리소에서는 엄격한 절차와 관리자들의 비인격적인 태도에 모두들 마음이 상했다. 난파선의 난민을 대하는 듯한 태도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부딪치게 될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었다. 약소국의 설움 같은 입국소감들을 가슴에 안은 채 버팔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했다.

미국, 그리고 하버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을 찾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하버드 스퀘어의 모두가 하버드였고, 학교이면서, 상가이면서, 기숙사이고, 마을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작은 건물 하나에 Harvard Yenching Library라는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었다. 엔칭 도서관의 한국

자료 담당인 강미경 한국관 관장이 우리를 맞아 도서관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다. 건물 내부, 서가, 테이블 등은 낡고 초라하며 구식이었지만 소장된 한국도서만은 13만 권에 달한다고 했다. 좁은 건물에 자료를 다 수용할 수 없어 별도 건물의 서고에 일부 보관하고 이용자가 원하면 찾아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버드대학 법률도서관은 대학원생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문도서관이었다. 아늑하고 쾌적한 실내와 웅장한 시설, 방대한 크기에 압도되면서 도서관 곳곳을 돌아보았다. 투어를 끝내고 참고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참고사서와 세미나실에서 면담이 있었다. 형식이나 절차 없이 그들은 우리가 앉은 테이블의 외곽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세로 자신들을 소개한 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첫 마디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넓혀가도록 하는 대화방식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참고서비스도 이렇게 시작하면 이용자의 요구에 더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석사이고 박사학위 소지자인 이들 사서들은 교수들의 연구지원과 대학원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문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과 IT기술에 관한 더 많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 연구실을 갖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 한국관 관장과 함께〉

추고 대학원 수업에도 직접 참여하는 이들의 서비스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알려진 MIT대학의 공학도서관에서 만난 사서도 역시 지리학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 사서였다. 지질학 관련 프로젝트를 교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사서는 자신의 보조인력(대학원생)과 더불어 Text 지도에서부터 위성지리정보를 망라하여 검색된 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들이 축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MIT의 Media Lab Center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미래에 올 것,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을 현실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과 씨름하는 천재들의 씨름장 같았다. 연구동 전체가 난장판 같은 그 곳에서 세계가 놀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낸다고 한다.

4일차에는 뉴욕의 마천루를 감상할 새도 없이 뉴욕 42번가 중심의 뉴욕공공도서관에 도착했다. 주변 전체가 도심이면서 공원인 그 가운데 위치한 공공도서관에는 시험기간 대학의 일반열람실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미식축구장 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자료열람실(Reading Room)에는 청년에서 노인까지의 어른들이 빈자리가 없도록 앉아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놓인 개

인 전등이 모두 불 밝히고 있어 웅장한 실내가 정물화처럼 느껴졌다. 공원에서 한가로운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과 자료열람실에서 불 밝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거대한 미국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았다. 도서관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입실하면서 로비에 있었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부함이나 도서관 관련 용품을 파는 도서관 숍(Library Shop)도 인상적이었다.

5일차의 콜럼비아대학은 뉴욕 할렘가와 바로 인접해 있었다. 콜럼비아대학의 비즈니스 도서관에서도 온라인 참고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원생 이상의 전문 이용자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사서가 어울려 이루어내는 연구들이 진정으로 우리 도서관

이 지향해야 할 참고서비스의 방향인 것 같았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 도서관들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한다. 학부생의 수준에 맞



〈뉴욕공공도서관 로비의 도서관 숍〉

는 대출과 열람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고 서비스의 포커스도 학부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서들도 주제에 정통한

학문적 배경이 있어야 하겠고 도서관의 서비스도 이용자층을 나누어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

6일차에 방문한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방문지였다. 목록법, 분류법 등 도서정리 기술에 관한 많은 기준과 표준을 만든 도서관으로 도서 정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LC 한국관 사서의 안내를 받아 한국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뒤 목록부서(Cataloging Division)에서 아시아권 자료를 정리하는 사서와 면담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자료의 전거파일과 주제(Subject)를 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하루에 한 명의 사서가 정리하는 도서가 5권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현실



〈미국의회도서관 자료열람실〉

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이었다. 도서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자료의 주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제는 5~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후에야 적용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그들의 업무프로세스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정

리 현장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무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넓고 어마어마한, 우리 도서관 정리실의 몇 십 배쯤 되는 규모를 생각하고 살펴본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작은 도서관의 사무실 정도였다. 1억 3천만 권의 장서에 하루 입고되는 자료가 2만권이요 그 중 목록 대상이 되는 자료가 1만권이라고 한다. 연간 입수되는 장서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언제나 정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미소만 지었다. 미정리 도서의 압박(?)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LC는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열람 전문도서관으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자료 대출은 Public School Library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C 다음으로 방문한 The National Archives는 미국연방정부의 주요문서를 스캔하여 보관하는 기록보존소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The National Archives의 전시관이었다. 기록보존소를 왜 만들었고 무엇을 기록하였으며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전시부스를 설치해 두고 관람토록 하였는데, 애니메이션, 오디오, 영상물, 텍스트,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역사와 함께하는 곳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프로젝트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장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미국의 전국도서관대회라 하는 ALA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있었다. 밀워키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인 참가비(35\$)를 후원하였고 그 학과의 정우섭 교수가 미국 내 모든 일정을 인솔자, 통역자,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이 ALA일정과도 맞출 수 있었다. 거대한 도서관 산업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과 도서관도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 'Opening General Session'에서의 상원의원 기조연설 등 미국 도서관계와 도서관 산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든 일정은 끝이 났다. 뻑뻑한 일정을 투덜거리던 연수단은 토론토대학의 친절함 안내에 감동한 첫 날부터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것을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세우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관중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고 보는 느낌들이 다 달랐겠지만 한 가지 공통으로 느낀 것은 "대단하다, 거대하다, 철두철미하다, 전문적이다"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현실과 너무도 달라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현실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단지 우리 자리에서 그냥 대충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더 전문가적인 정신과 자세로 업무에 접근하자라는 거였다. 근본을 철저하게 하는 그들을 보았으니 내 자리로 돌아와서도 전체 투시도를 그리고 그 다음은 시작단계부터 철저히 다져가는 방식으로 일해야겠다고 거듭 다짐



〈ALA Annual Conference 2007 전시부스〉

하게 되었다. 워싱턴 Dulles 국제공항에서 다시 철저하게 검사(?)당하면서 "이 나라는 어느 곳도 대충 지나가는 것이 없구나."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만이 살아남는다.” 